

출생기본소득 사각지대 해소... 숨은 출생가정 발굴

나주시, 1세부터 18세까지 총 4320만 원 지원... 출생부터 양육까지 촘촘 지원

전라남도 나주시가 출생기본소득 보호자 주소 요건 완화로 따라 2024년 이후 출생가정 중 그동안 신청하지 못했던 대상 가정을 적극 발굴하며 출생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 해소에 나섰다.

나주시는 올해부터 출생기본소득 신청 요건이 일부 완화됨에 따라 과거 주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던 가정을 대상으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출생기본소득은 전라남도 내 2024년 이후 출생아를 대상으로 1세부터 18세까지 매월 20만 원씩 총 4320만 원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출생 지원 정책이다.

그동안은 출생신고 시점부터 모든 보호자의 주소가 전라남도에 있어야 신청이 가능해 맞벌이, 타 지역 근무 등 현실적인 사정으로 혜택을 받지 못한 가정이 적지 않았다.

그러나 2026년부터는 출생신고 시 보

호자 중 1인 이상만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요건이 완화됐다.

다만 실제 지급 신청 시점에는 출생아와 모든 보호자가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어야 하는 요건은 유지된다.

이에 따라 2024년생 출생가정 중 당시 보호자 1인의 주소만 전남에 있어 신청하지 못했던 가정도 2026년부터는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시는 제도 변경 사항을 널리 알리고 대상 가정이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개별 안내 등 적극 행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나주시는 출생기본소득과 함께 출산 이후 초기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한 '나주시 출산장려금'을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원 규모는 출생 순위에 따라 첫째 300만 원, 둘째 500만 원, 셋째 이상 100만 원이다.



출산장려금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 후 남은 잔여금은 '나주시 출산육아지원금' 명칭으로 출생기본소득과 함께 모바일 지역화폐로 지원해 출생가정의 실질적 양육비 부담 완화에 지역 내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도 함께 도모하고 있다. 나주/이명열 기자



담양군, 자활의 거점 '담양지역자활센터' 개관

자활사업 전용 공간 조성으로 안정적 일자리 기반 강화

자활 참여자의 자립과 성장을 지원하는 전용 공간인 담양지역자활센터가 문을 열었다.

담양군(군수 정철원)은 24일 자활사업 전용 공간인 담양지역자활센터의 개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관식에는 담양군수를 비롯해 담양군의회의장, 도·군의원, 수탁 기관장, 담양지역자활센터 종사자와 자활근로 참여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센터의 개관을 함께 축하했다.

담양지역자활센터는 근로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7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67명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자격증 취득 지원을 통해 취·창업 역량을 높이고, 자산 형성 지원으로 안정적인 자립을 뒷받침하고 있다.

센터는 2003년 설립 이후 여러 곳에 분산된 공간에서 사업단을 운영해

왔으며, 2020년부터는 담양군 소유 건물을 무상 임대해 사용해 왔다.

이후 시설 노후로 근무 환경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23년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자활센터 신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지상 2층 규모의 신축 건물을 조성하게 됐다.

신축 센터는 1층에 작업장과 휴게실, 세탁실을 배치하고, 2층에는 강당과 상담실, 직원 사무실을 마련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활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신축 자활센터에는 병행동행 사업단과 청소년취업사업단인 굿크린사업단이 입주해 운영 중이며, 센터 외부에서는 카페, 청출어람과 세모, 도시락 사업단인 유미의 도시락, 가전제품 부품을 조립하는 셋발이름사업단, 오래된 사무용 가구를 수선·재판매하는 생활용 사업단 등도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담양/이종욱 기자

영광군(군수 장세일)이 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에너지 기본소득 도시' 비전을 공식 선포한다.

군은 2026년 3월 6일(금) 오후 2시, 영광문화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영광군 에너지 기본소득 도시 비전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이익의 공유를 통한 지역순환형 기본소득 모델을 대내외에 선연하는 자리로,

영광군, '에너지 기본소득 도시' 비전선포식 개최

함께 만들고 같이 누리는 기본소득 도시 공식 선언

군민들에게 기본소득 정책 추진 의지를 함께 공유할 예정이다.

행사는 영광형 기본소득 정책 로드맵 발표로 본격 시작된다. 군은 재생에너지 발전수익을 군민과 공유하는 구조, 단계적

실행 전략 등을 제시하며 정책의 구체적 청사진을 공개한다.

이어 기본소득 도시 실현을 위한 비전 선언문을 낭독하고, 해상풍력발전사업자 협의회와 발전이익 공유제 추진을 위한

상생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를 통해 발전사업자와 지역사회가 이익을 함께 나누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영광군은 이번 비전선포식을 계기로 재생에너지를 단순한 발전사업이 아닌 지역소득 기반으로 전환하고,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기본소득 모델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영광/이현식 기자

전국의 많은 지자체가 인구 감소로 고민하는 가운데, 전남 함평군의 합계출산율 상승세가 주목받고 있다. 함평군은 "지난해 합계출산율 1.43명을 기록하며 3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대표적 지표다. 함평군의 지난해 출생아 수는 118명,

함평군, 2025년 합계출산율 전국 5위 기록

지난해 출생아 수 118명... "3년 연속 상승세"

합계출산율 1.43명으로 전국 평균 0.8명·전남 평균 1.1명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합계출산율은 전국 5위, 전남 4위를 기록해 지자체 가운데 출산율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함평군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0.88명에서 2023년 1.22명, 2024년 1.32명, 2025년 1.43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으며, 3년간 1.63배 상승했다. 군은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과 촘촘한 출산·양육 지원 정책이 출산율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으며, 특히 올해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확대된 산후조리비 지원 정책이 결정적 요인으로 꼽혔다.

심화섭 함평군 보건소장은 "아이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임신·출산·양육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해 출산율 상승 흐름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함평/전광훈 기자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5일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장내기생충 감염 예방을 위해 '2026년 장내기생충 퇴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질병관리청과 연계해 추진되며, 화순읍 앵남리 및 6개 면(한천·도곡·도암·이서·백야·사평) 지역 주민 600여 명을 대상으로 간흡충(간디스토마) 등 11종의 장내기생충 검사를 무료로 제공한다.

검사를 희망하는 해당 지역 주민은 가

화순군, '2026년 장내기생충 퇴치 사업' 본격 추진

질병관리청과 연계... 간흡충 등 11종 검사 무료 실시

까운 보건지소 또는 진료소를 방문해 검체 용기(대변통)를 수령 후 분변을 채취해 제출하면 된다.

검사 결과 양성 판정자에게는 치료제를 투약하며, 간흡충 양성자의 경우 2-3개월 후 재검사를 통해 완치 여부를 확인하는 등 지속적인 추적 관리를 진행한다.

간흡충은 주로 민물고기를 생식하거나 오염된 조리 기구 등을 통해 감염될 수 있으며, 초기 단계에는 증상이 거의 없으나 급성 단계에서는 상복부 통증과 발열이 나타날 수 있다.

만성 감염 단계에는 허약, 식욕 부진, 황달, 간경변, 담관암 등의 다양한 증상

이 나타나며, 이는 감염된 기생충의 수, 감염 기간과 합병증 등에 따라 증상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

예방을 위해서는 ▲민물고기는 반드시 익힌 후 섭취하기(90℃에서 2분 30초 이상 100℃에서 10초 이상) ▲민물고기를 다룬 칼·도마 등 조리 기구는 열탕 소독하기(100℃에서 10초 이상) ▲민물고기 생식을 타인에게 권하지 않기 등의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화순/김종환 기자

장성군 "장애인 일할 권리, 보호받을 권리 보장"

장애인보호작업장·주간보호센터 준공... "복지 거점 갖춰 뜻깊어"

장성군이 장애인 복지와 일자리, 돌봄을 한자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군은 24일 황룡강 인근 작업장 광장에서 장애인보호작업장·주간보호센터 준공식을 열었다.

장애인보호작업장(장성읍 문화로 16-24)은 지상 1층 연면적 498.5㎡ 규모로 물티슈를 생산한다. 작업실, 재할상담실 등을 갖추고 있다.

앞선 12월 11일에는 사회복지법인 송광재단과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에 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 가동 준비를 마쳤다. 위·수탁 기간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간이다.

보호작업장 바로 옆에 위치한 장애인

주간보호센터(장성읍 문화로 16-22)는 장애인 돌봄 및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이다.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위탁 운영을 맡았다.

규모는 499.25㎡로 장애인보호작업장과 대동소이다. 교육실, 상담실, 조리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성군은 2022년 7월,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장애인보호작업장과 주간보호센터 건립을 공약사업에 포함시키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역 내에 장애인을 위한 안정적인 직업 훈련 공간과 전문적인 돌봄 시설이 부족하다는 판단에서였다. 이번 시설 준공으로 장성지역 장애인 복지·돌봄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장성/황해연 기자

